

# 새로운 노동자 국제주의

제이 마저(Jay Mazur) 전아프리카경제개발노조(UNITE) 위원장 · 미국노총(AFL-CIO) 국제위원회 회장

번역:김영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번호는 노조운동의 국제주의 부활을 제기하는 미국 노조 고위간부의 글을 번역한다. 이 글의 원문 제목은 'Labor's New Internationalism'으로 'Foreign Affairs' 2000년 1/2월에 실려 있다. 1999년말 국제무역기구(WTO) 총회가 벌어진 시애틀의 WTO-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으로 시작하는 이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단순하고 명확하다. 세계화는 자본의 세계화인데, 이는 근로대중의 삶의 질 향상이나 각국의 경제발전과는 무관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자간, 북국-빈국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끔 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기본권과 노조운동이 확립되어 있는 나라들에서의 노조운동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한 노조운동의 대응방향을 국제주의의 부활과 이를 두 차원, 즉 노조운동의 국제적 조직화와 투쟁 그리고 세계기구 및 국제협정 등에의 참여와 개입에서 찾는다. 아주 새로운 주장도 아니고 간간히 묻어 나오는 미국식 노조운동의 사고방식이 거슬리기도 한다. 하지만 기초가 분명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생생하여 세계화의 허상을 분명히 짚을 수 있을 것이다.

## 시애틀 메시지

지난 해 12월 시애틀 국제무역기구(WTO) 총회에 대항하여 벌어진 격렬한 투쟁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이란 사안이 미국 근로대중에게 얼마나 긴급한 문제 인지를 잘 드러내었다. 환경주의자, 소비자운동가, 인권활동가와 연대하여 전개된 이 투쟁에서 노동운동이 보내는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한 것이었다.

상충하는 상업적 이익다툼을 조정하기 위해 밀폐된 방안에서 엘리트들끼리만 은밀히 벌려온 무역협상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세계화(globalization)은 이제 전환점에 이르렀다. 미래는 21세기 세계경제질서를 수립할 공적인 선택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 세계경제의 배후에서 탈규제를 부추기고 기업에 영합하며 사회의 안정성을 파괴하고 대중의 이익을



CFTU

동자는 노조운동의 대응방향을 국제주의의 부흥과 이를 두 차원, 즉 노조운동의 국제적 조직화와 부흥 그리고 세계기구 및 국제협성 등에서의 참여와 개입에서 찾는다. 사진은 남아프리카 다빈에서 열린 CFTU(국제자유노련) 총회여 참가한 남아프리카 노동자들.

무시했던 세력들은 이제 더 이상 그 힘을 유지할 수 없다. 세계화는 치명적인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로 고통받고 있는 반면, 이익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얻고 있다. 끊임없이 대통령이 토르한 바와 같이 세계시장이 살아남으려면 근로대중의 가정에도 세계화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한 일보전진은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보호, 사회적 기준 등을 무역협정과 국제금융기관의 의정서에 포함시켜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이를 준수케 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이런 입장은 편협

하고, 보호주의적이며, 세계화되고 있는 경제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회화화되기 일쑤였다. 이는 노동운동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 다름 아니다. 공정성(fairness)에 대한 노동자들의 관심을 고립주의와 혼동하는 것은 개혁에 필요한 선택을 방해만 할 따름이다. 노동자들의 권리와 요구를 무시하는 무역정책은 세계를 후퇴시킨 뿐이며, 시애틀을 거리에서 울려 퍼진 함성소리는 과거에 대한 항수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도전을 표현한 것이다. 시애틀의 부사들은 생산된 부가 그 생산자들에게도 고루 나누어지고, 세계각국이 서로를, 그리고 지구와 모든 세계인들을 존엄과 존중의 정신으로 대하는 그런

세계를 상상했다. 이들은 또한 권력자들의 책임과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요구했다. 이런 이상주의는 단지 이상적인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지닐 수 있다. 부의 공정한 분배는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높임으로써 세계시장 침체의 원인인 공급과잉을 해소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세계경제를 관리하는 국제기구들은 각종의 정치, 경제 협상 석상에 근로대중의 자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 힘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가렛 대처의 고문이었던 존 그레이(John Gray)는 세계시장과 자유무역이 자연스런 현상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창조물이며, "사회공학과 불굴의 정치적 의지가 만들어낸 최중생산물"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런 시스템을 강요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적 대응을 낳을 수밖에 없다.

### 세계화의 어두운 그림자

비극적이게도 너무나 많은 근로대중이 새로운 경제질서 하에서 곤경을 겪고 있다. 최근의 유엔개발보고서(UNDR)는 세계화가 한편으로는 전혀 없는 규모로 사람들간의 교류를 증대시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외적으로 불평등을 크게 증대시켰음을 밝히고 있다. 세계 최고의 부자 200명의 재산이 가장 가난한 20억 명의 재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오늘날의 현실은 모든 사람들을 한숨짓게 한다. 비극의 바다 한 가운데 도시린

섬으로의 부의 집중은 역사상 혁명의 전 주곡이었을 뿐이다.

세계경제의 과실은 규칙을 정하고 시장을 지배하는 몇 안되는 나라들과 기업들에게만 편중되어왔다. 대부분의 무역과 투자는 선진산업국가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져 왔으며, 세계 수출의 1/3분을 통제하는 세계적 기업들이 지배해왔다. 세계 최대 경제단위 100개 중 51개가 기업이다. 민간금융자본의 흐름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공공개발원조를 능가해 왔으며, 또한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 이루어진 개발도상국 및 (사회주의로부터의) 이행경제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80%는 단 20개국에 편중되었으며, 그것도 주로 중국으로 집중되었다.

한편 무역규모 확대도 모든 나라에 성장만 가져다준 것은 아니었다. 1980~1996년 사이에 33개 국가들만 연 3%의 일인당 GDP성장을 유지했으며, 59개국에서는 일인당 GDP가 감소하였다. 80개국에서는 10년 전 혹은 그 이전보다 일인당 소득이 더 낮아졌다. 뒤쳐진 나라들은 예상과 달리 세계무역에 가장 깊게 통합된 나라들이었다. 예를 들어 시하라사막 아래쪽 아프리카 국가들은 라틴아메리카보다 높은 GDP대비 수출품을 기록했지만, 1차 상품이 주된 수출품이라 변덕스런 국제시장 환경에 취약하게 내던져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조건에서는 채무경감조항이나 노동권 및 환경기준의 강제

규정을 담은 아프리카부역협정은 새 병에 현 외인올 부은 꼴일 뿐이다.

수백만의 노동자들도 기존 경제를 교란하고, 정부의 노동자 지원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경제 하에서 곤경을 겪고 있다. 노동자들은 악화된 국가에서 결핍, 기아, 질병 등에 맞서 스스로를 부양해 나가도록 내던져지고 있다. 이들은 도처를 유랑하며 자신의 노동을 열악한 저임금에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며, 자식들을 희생시키고 자연환경과 때로는 자신의 건강마저 파괴하고 있다.

불론 세계화는 몇몇 나라에는 극적인 이익을 가져다주기도 하였다. 그중 가장 커다란 성공은 동아시아에서 생겨났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곳 나라들은 민영화, 규제철폐, 긴축금융, 그리고 무역장벽 저하 등을 추구했던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에 의해 지배되지 않은 바로 그 나라들이다. 이 중 많은 나라들은 사국시장을 보호하고 토지를 재분배했으며, 교육에 투자하고, 수출복표를 설정하고 수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중상주의적 무역혁신정책을 폈었다. 실은 이 모든 것들은 냉전시대에 미국정부가 눈감아왔던 것들이다. 그러나 최근 이들 나라 대부분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경제를 개방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였다. 그 결과 이들 나라는 말그대로 수백만에 달하는 근로대중을 궁핍으로 몰아넣은 최근 세계경제위기의 주요 희생자들이 되었다. MIT대교수 폴 크루그

만이 자신의 저서인 『공황경제학의 복귀』(Return of Depression Economics)에서 결론지은 것처럼, 이들 아시아 경제들은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때문이 아니라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사실상 보다 나은(‘더 나쁜’이 아닌) 자유시장경제가 되었기 때문에” 세계경제 변화에 취약해진 것이다.

최근의 금융위기는 그 심각성이나 범위에서 이례적인 것이었다. 세계은행의 전직 수석 경제학자였던 조셉 슈터글리츠가 지적한 것처럼 규제가 풀린 세계경제가 “과열의 평음”, 즉 더욱 심화되고 규칙성을 띄는 금융위기를 야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위기에서도 금융투기꾼들은 구제되었던 반민 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했다. 교육보전 예산은 빚을 갚기 위해 삭감되었으며,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쫓겨났다.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수 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가족이 해체되고 사회불안, 범죄, 폭력은 증가하였다. 거시경제통계는 나중에 개선될 수도 있을 테지만, 근로자 가정은 수 년간 그로부터 곤경을 겪게 된다. 실제 외국자본은 다시 돌아왔지만,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에서는 요즘도 빈곤과 절망이 떠돌고 있다. 멕시코 경제는 1996년 위기에서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영세기업들이 여전히 파산한 채 남겨져 있다. 멕시코 노동자들은 1994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래로 구매력의 25%를 상실하였다. 국제통화기금이 위

기에 처한 나라들에게 제시하는 처방들, 즉 수입을 늘려 외국 투기꾼들을 끌어들이려는 평가절하, 내핍, 사회보장 삭감 등은 노동자들과 국내산업가, 농민 등 경제위기에 책임이 없는 계층에게 위기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한다.

반복되는 금융불안정의 지속적인 효과 중 하나는 성장을 둔화시킨 것이다. 투기자본 흐름의 변동스러움은 경계를 요하며, 각국 정부로 하여금 보다 엄격한 재정금융정책을 취하도록 강요한다. 그 결과는 경제학자인 존 이트웰과 랜스 타일러가 증명한 바와 같이, 지난 25년 동안 이뤄진 규제철폐가 선진산업국가와 발전도상국 모두에서 성장 둔화를 초래한 것이다. 근로대중에게 성장의 둔화는 실업과 저고용, 임금 정체, 생활불안 증대를 의미한다.

세계화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결과는 세계화의 선동자들에 의해 분칠된 세계화의 장미빛 미래와는 대조적이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농촌에서 도시의 비공식부문으로 유입됨에 따라 일부 나라들에서는 삶의 질이 극적으로 향상되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올해 보고에 따르면, 1987년보다 2억 명 이상이나 더 되는 사람들이 절대빈곤선, 즉 하루 1달러 이하의 생활비를 가지고 살고 있다. 중국경제의 상대적인 성공을 감안한다면 이 숫자는 놀라운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이어 1990년대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

쳤다.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서는 대외채무, 공핍, 질병 등이 계속해서 경제발전을 가로막았다. 한때 산업국가였던 러시아는 물물교환 수준으로 경제가 후퇴하였다. 영원한 차세대 대대시장인 중국은 2년간 디플레이션에 사로 잡혀왔다.

세계화된 경제의 가장 큰 수혜자인 선진산업국가들조차도 경제지표는 혼재되어 있다. 일본은 10년간의 스태그플레이션으로부터 빠져 나오느라 힘겨워하고 있으며, 유럽은 저성장, 만성실업 그리고 임금과 노동조건 저하 압력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로 최장기간의 지속적 성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임금은 아직도 수십 년에 걸친 바닥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임금불평등은 1890년대의 황금시대 이래로는 전례 없을 정도로 확대되어 최고경영자가 노동자보다 소득이 416배나 많은 지경에 이르렀다. 제대로 된 의료보험과 연금 혜택을 받는 노동자 수는 더 줄어들었으며, 노동자들은 장시간노동과 고용불안, 노동강도 강화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화된 경제에서는 이런 불평등 확대와 저성장, 임금의 정체 혹은 저하가 뒤섞이면서 세계적 차원에서 과잉생산능력을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구매력이 낮아진다.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알렌 그린스펀조차도 아시아 경제위기가 세계 각지로 확산되어 나갈 위험이 있다고 소리 높여 디플레이션 위험을 걱정하고 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의 진정한 원인은 세계화를 지휘하는 사령탑에서부터 발생하였다. 세계은행의 슈티글리츠가 지적한 바대로 세계화에 대한 워싱턴 컨센서스는 불평등이나 환경파괴, 아동노동과 위험작업과 같은 “외부효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해, 또 이들 자신에 의해 치뤄진 수 차례의 세계무역협상을 통해 정해진 규칙들에 기반한 경제규율체계는 각국이 상업조례를 개정하고 전통적인 경직법을 폐기하며, 지적소유권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체계는 그런 정책들로 인해 생기는 인적 비용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

국제무역기구(WTO)가 강제하는 이런 규칙들은 노동자들과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사회가 깊이 간직하고 있는 가치들을 입법화하고 되살리려는 노력을 좌절시키고 있다. 매사추세츠 시민들은 주정부가 미얀마의 야수적인 독재정권과 거래하는 기업들과 계약맺는 것을 저지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고임금 일자리가 기아임금을 강요당하는 외국 노동자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힘없이 바라보고만 있어야 한다. 공해방지를 위해 청정가솔린을 사용케 하려는 법률은 차별적이라고 거부당하고, 벌종위기의 동물들을 보호하려는 규제는 무역에 해롭다고 거부당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시대에는 어떤 현대적 경제체

제라도 그 정당성은 다수 사람들의 삶의 질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이런 현실로 인해 전세계 각지의 근로대중들은 세계질서의 환경과 조건에 대항하는 투쟁을 확대해 온 것이다.

### 완전히 새로운 세계

노조들은 자신이 세계화라는 도전의 전면에서 있는 것에 놀라지 않는다. 노조들은 항상 국경을 가로질러 활동해 왔으며, 그 이념적 뿌리와 초기 멤버십의 많은 부분이 지난 세기 유럽노동운동의 국제주의적 전망으로부터 발전해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기업들이 여전히 무역장벽을 치고 있을 때에도 노동자들은 연대와 사회정의에 기초한 국제적 단결을 조직하고 있었다. 이런 가치는 노조운동을 늘 전쟁과 평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거대한 이슈들 속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세계현대사 또한 강력하고 자주적인 노조들과 참된 민주주의 사이의 상관관계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 왔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세계경제의 규칙을 둘러싼 지속적인 논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된다.

조직노동자들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은 천천히 이루어져 왔다. 2차 대전 이후 선진산업국가에서 맺어진 사회민주주의적 노자 타협은 완전고용과 사회계약에 중점을 두었다. 그 후 25년간 기업과 노동자들은 함께 번영을 누리었다. 무역은 상대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덜 미쳤고, 무역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Teamsters 노조원들.

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수출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곤 하였다. 수입은 특별히 취약한 산업들에만 영향을 미쳤다. 반면 노동운동의 국제적 역할은 산업 차원이었다기보다는 지정학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냉전기에 미국노총(AFL-CIO)은 자신의 국제적 입무를 주로 반공주의의 색안경을 통해 규정하였다. 주요 국제 노동운동 조직인 국제자유노련(ICFTU)과 산업별 가맹조직은 모두가 반공투쟁의 도구로 간주되었으며, 또 그런 역할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었다. 강력하고 자주적인 노조들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변영의 이익을 분배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이라고 여겨졌으며 그 결과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시장경제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느

끼게끔 되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는 노조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변화시켰다. 노조들은 정치적으로 덜 중요해졌고 기업이익에 장애물로 여겨지게 되었다. 기업의 이념 공세는 노조를 지나간 시대의 유산으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거대기업들이 세계화되어 노조에 점점 더 공격적인 태도를 취함에 따라 노동운동도 더욱 국제주의적이 되어가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모든 주요한 노사분쟁은 국제적 차원의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이익분배 요구를 분쇄하기 위해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위협을 가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 자신이 외국기업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미국식품산업노동조합의 1백만 조합원 중 1/3은 비(非)미

국기업에 고용되어 있으며, 기업합병과 제휴로 자본의 지구적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더욱 많은 노조들이 유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대해 노조들은 기업들이 새로운 (지구적) 경제를 기획하기 위해 형성했던 국제적인 연계와 유대에 유사한 방식으로 국제적인 전략적 연계와 연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연대활동들은 기업들이 자신의 이동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배치한 현대적 통신기술들을 활용하고 있다. 수년 전 실시된 미국 노총(AFL-CIO)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 노조의 3분의 2가 일상적인 조직 및 교섭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국제활동을 펼치고 있었노라고 응답했으며, 이 중 87%는 세계적 차원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요 노조의 국제 활동은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어떤 한 개인에 의해서도 충분히 수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방식은 불가능하다. 현재 가장 발전된 노조들은 조직화, 조사, 정치활동, 공공관계, 교육, 법률, 건강 및 안전, 기업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전략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이 전략들은 해외의 노조들과 효과적인 연계망을 형성하고, 단체행동을 조율하며, 정부에 대해 로비활동을 펼치고, 법적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며, 이 모든 활동을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공공연히 펼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유럽에 분부

를 둔 국제산별노련(IT'Ss)의 사무국들이 각국 해당산업노조들 사이의 국제연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적극적 연계의 위력

현재 노조들은 기업의 세계적 활동구조에 대한 그림을 정확히 가지고, 그 취약점을 효과적으로 압박하고 세계의 노동자들 및 노조들과 연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이런 전략의 극적인 사례가 1997년 18만 5천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한 팀스터노조의 UPS파업이다. 이 파업투쟁은 돌입한 지 2주 후에 노조의 승리로 타결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타결을 노동자의 투쟁력이 부활한 징표로 보았다.

이 파업은 UPS 팀스터조합원들의 준비된 투쟁에 의해 성공한 것이다. 이들은 미국내 조직을 잘 동원하였으며, 효과적인 캠페인으로 여론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이들의 승리에는 국제연대 또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미국 우편시장의 지배적 기업인 UPS 입장에서는 장기간의 국내파업은 견뎌낼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팀스터조합원들은 UPS가 유럽에서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으며 유럽시장 진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알아챘다. 유럽은 UPS의 세계경영에서 취약 지점이었던 것이다. 노조는 바로 거기를 타격했다.

이 전략을 기획하는 데서 팀스터노조는 자신이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폭넓은



국제지원네트워크에 의지하였다. 파업 1년전 팀스터는 국제운수노련(ITF)의 도움을 받아 UPS노조국제협의회를 구성하였다. 각국 UPS노조들 사이에 연락관계가 수립되었으며,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독일, 브라질, 아일랜드, 그리고 미국의 노조대표들로 구성된 일련의 회의가 치루어졌다. 어떤 노조도 그런 관계를 맺지 못했다. 여러 조직이 UPS노동자들을 대표했으며, 많은 조직들은 노동자들을 조직하려 노력했다. 다른 조직들은 경쟁기업의 노동자들을 조직하였다. 이들은 UPS가 우편산업 노동기준을 하락시키는 데 성공하면 고통을 받게될 사람들이었다. 일부 조직은 고용주들과 상대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그렇지 못했다. 역량과 전투성도 나라마다 다양했다. 어떤 나라에서는 금지되고 있는 활동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되곤 했는데, 특히 이런 문제가 노동자들을 세계 차원에서 조직하는 데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시켰다. 그러나 결국 노조들은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회의를 갖고 UPS 사측과의 최후 협상 날짜에 맞추어 조직한 'UPS 세계행동의 날'에 발표할 일련의 요구들을 확정지었다.

세계 각국에서 온 팀스터노조의 "(미국)초대손님들"을 회의석상에서 맞닥뜨리게 된 UPS회사협상대표들은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미국 안에서만 머물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UPS세계행동의

날'에 회사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지에서 작업중지를 포함해서, 세계 도처에서 벌어진 150건 이상의 단체행동과 시위에 맞닥뜨려야 했다. 유럽의 주요 고객들은 회사의 안정성에 의문을 표하기 시작했다. 연대행동으로 파업이 더 확산되고 사업전략상의 중요 요소가 훼손될 수도 있으리라는 위기감이 더욱 강해졌다. 결국 회사측이 프랑스의 한 운송노조가 파리 오를리공항의 UPS사업소를 폐쇄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접한 다음날 파업은 종료되었다. 노조협상대표들에 따르면, 이 승리는 상당부분 전혀 없는 국제 캠페인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런 대규모의 국제캠페인 조직화 시도가 갖는 어려움을 결코 낮게 평가할 수 없으며, 그 성과도 또한 그렇다. 이제 대부분의 노조들은 세계 경제에서 고용주들이 구사하는 유동성과 민첩함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노동자들 역시 해외의 조건이 국내의 추이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시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운송업과 같은 몇몇 산업에서는 사용자들이 이런 종류의 캠페인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기업구조는 취약점을 갖고 있으며, 노조들은 그것을 찾아내는데 더욱더 능숙해지고 있다. 노조운동은 컴퓨터, 전화, 팩스 등과 같은 통신수단을 통해 조사결과와 계획을 공유하고, 정기적인 대면접촉에 의해 활력을 얻고 있으며, 더욱 활성화·고도화

되고 있는 전세계 1억5천만 조직노동자들의 조직들과 공동으로 일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운동은 자신의 힘을 세계화된 경제를 압박하는데 동원해내고 있다.

현재 주요 파업의 피케팅 대열은 거의 일상적으로 국제화되고 있다. 아틀랜타의 팀스터노조, 남캐롤라이나의 칠강노동자들, 캘리포니아의 호텔노동자들은 유럽, 일본, 남아프리카의 동료 노조들로부터 지원을 얻고 있다. 연대행동 요구는 통화거래 속도는 못되더라도 그에 비견될만큼 신속하게, 또 그보다 더 지속적인 힘으로 사방으로 퍼져가고 있다. 기업들은 노조와의 협상자리에서 외국에서 온 노동자대표와 마주해야 한다. 이런 일은 현재 멕시코와 미시간주의 피클 생산 저 기술산업에서 미국, 캐나다, 영국 등지의 다국적 거대 통신기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다.

### 밑바닥으로의 질주

세계화는 자주적 노조가 존재하지 않고 조직화가 탄압받는 나라들에서 가장 파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자국의 수출지대를 노조무풍지대로 만들고 있다. 중미의 고한노동 마퀼라(maquilla) 공장들은 단지 하나의 예일 따름이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세계각국의 850군데 수출지역을 조사한 데 따르면, 2천 7백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이들 지역에서 자유로운 노조와 최저노동

기준의 존재는 "극히 드문" 현상이 되고 있다. 수많은 미조직노동자의 존재는 국제노동운동에 핵심적인 도전이 되고 있다. 이들 중 많은 부분은 이른바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지만, 산업화된 국가들에도 수백만의 이런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이들이 앞서 인용한 UN통계에 잡힌 사람들이며, 세계화된 경제에서 늘어나고 있는 불평등의 희생자들이다. 이들은 조직화, 단체교섭, 파업 등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밑바닥으로의 질주"(the race to the bottom)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경쟁은 정책입안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때까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미조직노동자 문제에 대하여 노조들은 "일거리를 따라가라"(following the work)는 섬유산업에서의 오랜 전략을 다시 배우고 있다. 1920년대에 뉴욕시의 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하자, 업자들은 보다 값싸고 말 잘 듣는 노동자들을 찾아서 허드슨강 건너의 뉴저지주에 있는 "외국인지대"(뉴욕 의류지대의 외부에 있는 모든 지대가 그 당시에 그렇게 불렀다)로 작업장을 이동시켰다. 그러자 노조는 해당 기업을 뒤쫓아가서 거기서 노조를 조직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기업들이 제차 필라델피아와 중서부로 이동하자 노조는 다시 이를 뒤쫓아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노조들은 노동자들을 아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노동기

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많은 노조들도 곧 이를 깨달았으며, 노동기준 법제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인 끝에 1938년 공정노동기준법을 확보하였다. 이 법은 노동시간, 근로조건, 그리고 최저임금을 정하였다. 이러한 역동적인 조직화와 전국노동기준 입법화의 결합은 수백만 노동자 가구의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미국 민주주의의 이상을 떠받쳤다.

최근 일부 사용자들은 과거 섬유산업 사용자들과 유사하게 생산을 세계의 반대편으로 이전시켜왔는데, 처음에 이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지구물 앞에 떠나버린 것처럼 막막하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미국 노동자들과 생존 한계지점에서 살아야 하는 해외 노동자들과의 경쟁이 결국 미국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기준을 저하시킨다는 점이 점점 더 명백해졌다. 아시아와 중미 노동자들의 참담한 노동조건이 1995년 캘리포니아주의 엘몽테에서 발견된 악명 높은 고한 작업장의 노동기준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노조들은 다시 한번 일거리를 따라가야 했다. 전지구적 규적이 자국과 해외 모두에서 존중받게 하고자 세계 곳곳에서 노동기본권과 노동기준을 위한 캠페인이 전개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봉제공예직물노조(UNITE)는 지난 5년간 중미와 카리브해안의 50만 섬유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섬유노동조합(ITGLWF)과 긴밀한 연계를 맺고 활동

해 왔다. 정치적 경계선이 멕시코와 미국, 캐나다의 노동자들을 나누고 있지만, 미국 제조업자들과 소매상들이 전체인외주화 전략과 함께, 이 지역의 경제 개방을 위한 무역협정은 약 2백만이 일하고 있는 이 지역 섬유산업을 단일 노동시장으로 묶어놓았기 때문이다.

이중 남반구 노동자들은 단체교섭과 단결권을 체계적으로 거부당했기 때문에 명목상 임금이 북반구의 조직노동자들의 약 1/10에 머물러 있다. 이 노동자들 대부분이 자기 나라의 공식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기아적 노동조건(Abysmal Standards)은 그 산업 전체를 통하여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 있다. 결국 전미봉제공예직물노조(UNITE)는 1930년대 노조들이 그러했듯이 미국의 남부국경을 넘어서 "일자리를 따라 조직하기" 활동을 펼치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인접국가의 노동운동을 지원하고, 조직가들을 훈련시키며, 캠페인을 조율하고, 정부에게 입법 로비활동을 펼쳤으며, 미국민의 공정성과 사회정의감에 호소하였다.

진전은 더뎠지만 확실하였다. 노조와 인권단체들은 여성과 아동이 겪는 수치스런 노동조건을 폭로하였다.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서 수천의 노동자들이 수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노조를 만들어 가입하였다. 다국적기업들은 최소한 말이라도 자신들의 전지구적인 생산 사슬

에서 노동조건을 위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인정했다. 각국 정부들은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열기와 소비자들로부터의 동조를 감지했다. 나이크(Nike)와 같은 기업들, 기포드(Kathie Lee Gifford)와 같은 저명인사들은 이런 현실을 목도하였다.

미국인들이 구입하는 옷의 최소 반절 가량이 아직도 국내와 해외의 고한 사업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가격 이외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자신이 사는 옷이 고한 작업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옷값을 더 지불할 수도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신세대 학생활동가들은 고한노동에 반대하는 노동운동에 동참해 왔으며, 시의회와 주의회는 고한작업장에서 생산된 상품의 구입을 금지했다. 기아적 노동조건과 이를 방지하는 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하나의 사회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 테이블의 좌석

수년간 각국 정부는 노동권과 환경권을 무역협정에 포함시키라는 요구를 무시해 왔다. 그렇게 해도 아무런 정치적 대가를 치르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고 있다. 노동자들은 환경운동가, 인권운동그룹, 종교 및 소비자운동의 활동가들과 새로운 연대를 꾀하고 있다. 아마도 이 연대의 정치적 위력을 가장 놀랍게 시위한 것이 지난 해 의회가 “고속”(fast-track) 교역인가를 한번만이 아니라 3번이나 거부한 것일 것이다. 이 새로운 연대는 어떤 교역협상국(trade-negotiating authority)도 교역을 개시하려면 노동권과 환경보호를 전제조건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하원 대다수와 양당 지지자 대부분을 포함한 대중의 다수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sup>1)</sup> “고속무역인가”의 차단은 이 새로운 대중운동의 대표들이 협상자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속교역인가”와 무역 일반에 관한 논쟁을 더 이상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주의 사이의 논란으로 긴주해서는 안된다. 지구적 무역협정에서 국제금융기구에, 그리고 미국무역협정과 법률에 삽입될 강제력 있는 노동권의 요구가 세계화된 경제에 반대하여 장벽을 쌓으려는 노력의 일환은 아니다. 이것은 세계화된 경제에 규칙을 정하려는 것이며, 세계화된 경제의 밑바닥에 안전망을 치려는 것이며, 임금과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1) 1996년 워싱턴세계여론조사(Within Worldwide poll)에 의하면 미국의 대중들은 무역협정에서 노동권과 환경문제를 다루는 것을 찬성 73% 반대 21%의 압도적인 비율로 지지하였다. 1997년 미국노동(AFL-CIO) 의회로 행해진 피터하트먼조사(Peter Hart poll)에 의하면 응답자의 72%가 노동기준과 환경기준을 무역협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97%가 음식 안전기준, 94%가 직업정신건강기준, 93%가 아동노동금지법, 92%가 파업의 자유, 81%가 최저임금, 78%가 노조결성권을 무역협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다행스럽게도 핵심적인 노동권에 대한 합의가 이미 많이 이루어졌다. 지난 해 173개국의 노사정 대표들은 단결과 단체 교섭의 자유를 포함한 핵심적 노동기준들을 기본권으로 재확인했다. 그들은 또한 강제노동, 아동노동, 고용차별 등의 제거를 요청하였다. 실질적으로 모든 자주적 노동조합연합단체들은 세계무역 체계 속에 노동권을 확립하려는 국제자유노련(ICFTU)의 요구를 승인하였다. 분할은 남과 북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곳의 노동자들과 거대자본 및 그들이 지배하는 정부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다.

노동기본권을 강제한다고 해서 노동조건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그것은 노동자들에게 집단적으로 활동할 힘 - 이론적으로는 최소한 50년 이상이나 누려온 권리 - 을 부여한다. 이제 그 권리를 실제로 강제할 때가 된 것이다. 노동자들은 자주적 노조에 가입함으로써 빈곤으로부터 헤어날 기회를 더 가지게 될 것이며, 사회적 이익에 의해 지배되곤 하는 입법과정에 좀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부와 소득도 더욱 골고루 분배될 것이며, 투기적 붐은 더욱 제한되는 반면, 경제적 수요는 감퇴 없이 좀더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시애틀 투쟁 이후 노동권과 다른 사회적 기준들에 대한 요구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무역기구(WTO)와 다른 국제경제기구들이 이 요구들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피해를 보는 쪽은 문제를 개선하려는 운동세력이 아니라 그들 자신일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각국 및 지방 정치에 관심이 돌려질 것이고, 무역협정에 대한 반대가 생겨날 것이며, 보호무역에 대한 지지와 정부보조금은 늘어날 것이다. 한편 기업들도 폭로와 방해, 소비자 보이콧과 노동자들의 저항에 자신들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먹물거리가 보호되고, 공기와 물이 오염되지 않기를 주장할 것이다. 인권활동가들은 야만적인 체제에 대한 제재를 요구할 것이고 노동자들은 의지할 대상(recourse)을 요구할 것이다. 그런 점들에 유의하지 않으면 세계도처에서 위협스러운 신종 고립주의가 창궐할 것이다.

노동운동은 이러한 개혁을 위한 투쟁과 새로운 국제주의의 건설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 투쟁은 공장문 앞에서, 지방 및 중앙의 입법과정에서, 또 국제협상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국내외 법제도들의 융합이 매끄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세계경제의 변혁 과정은 그에 상응하는 정치 제도들의 등장을 결여하고 있으며, 노동자, 사회운동가, 일반시민들은 지금 그런 방향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래의 세대들은 분명, 오늘날의 지도자들이 왜 개혁의 수행방법이 아니라 개혁을 해야 되는가 여부를 놓고 다투었는지 의문스러워 할 것이다. ❖